



28만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순천시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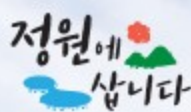
SUNCHEON CITY COUNCIL

2022년 4분기 제37호

의정소식

The Suncheon City Council News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4. 1. ~ 10. 31.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 + 순천만습지 + 도심 일원





C O N T E N T S

02 인사말

04 의회소식

06 회기별 처리 안건

- 의원 발의 안건
- 그 밖의 처리 안건

10 주요 의정활동

- 시정에 관한 질문
- 대정부 건의
- 의원 자유발언

49 순천시의회와 ‘폐친’이 되어주세요

50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58 특별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61 의회 갤러리

70 순천뉴스

73 순천시의회 안내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희입니다.

제9대 순천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 아래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찬 결의를 다지며 첫걸음을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6개월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순천시의회는 모든 의정 활동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6개월은 새로 함께하게 된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순천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온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9대 의회가 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63회 정례회와 264회 임시회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돋보인 회기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비롯하여 2023년도 업무보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 수많은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에 관한 질문과 건의안 등을 통해서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대정부 차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굵직한 현안사업부터 일반 민원 사항까지 경중(輕重)을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우선 정책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는 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건강한 견제와 진정한 협력으로 28만 순천시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아름다운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10월 29일에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순천시의회는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교토삼굴(狡兔三窟)의 정신으로 매사 모든 사항을 지혜롭게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여 순천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제37호 의정소식지」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 순천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의회 의장 정명희

NEWS

NEWS 01

순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순천시의회는 9월 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의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위원 7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각계각층

의 추천을 받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분야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의원의 검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양형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의원의 징계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하게 될 것이다. 정병희 의장은 “시민이 기대하는 의회의 청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EWS 02

순천시의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협약 체결

순천시의회는 10월 19일 함평군립미술관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전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노력과 박람회와 연계한 전남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박람회 기간 중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전남 관광지를 홍보하기로 하였으며,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와 박람회 기간 전남 시·군 등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병희 순천시의회장은 “순천시의회는 내년도 순천시 현안사업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실어 주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NEWS 03

순천시의회, 전북 전주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활동 펼쳐

순천시의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27일 전북 완주군 소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간의 지방의원 전문과정 교육 수료 후 순천으로 복귀하던 중, 전주시 한옥마을, 전동성당 등을 찾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배부



하고, 박람회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박람회 개최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미래정원, 저류지정원, 국가정원벚길 정원체험선, 순천만 어싱길(맨발걷기길), 경관정원 등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NEWS 04

순천시의회, ‘이태원 참사’ 추모 및 애도의 뜻 전해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11월 1일 순천대학로 합동분향소를 찾아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순천시의회 의장단과 의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을 전했으며,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애도 차원의 리본을 착용하고 사적 모임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순천시의회는 앞으로 개최예정인 행사를 대비해 순천시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은 “뜻밖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에 조의를 표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제263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1. ~ 9. 30.)



의회

발의자 김미연 의원 외 8명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이항기 의원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이유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과시킴.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계획에 대해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계획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



의회

발의자 박계수 의원 외 6명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함



의회

발의자 장경순 의원 외 10명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함



발의자 정홍준 의원 외 14명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제정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 서선란 의원 외 9명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발의자 최현아 의원 외 16명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순천시의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264회

임시회 (2022. 10. 14. ~ 10. 26.)



발의자 김미연 의원 외 4명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 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 유승현 의원 외 7명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의원발의



발의자 장경원 의원 외 12명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이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발의자 장경순 의원 외 7명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정이유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발의자 정광현 의원 외 9명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발의자 박계수 의원 외 5명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정이유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된 분야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발의자 최병배 의원 외 10명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 방식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그 밖의 처리 안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1. ~ 9. 30.)

-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4회 임시회 (2022. 10. 14. ~ 10. 26.)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
-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순천시 종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이 영 란 의원

왕조2동 / 행정자치위원회

- Q1 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 Q2 여순사건 기념공원 추진 계획에 관하여
- Q3 생목동 (전)배수펌프장 부지 비품 창고 신축 추진 상황에 관하여

Q1 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시내권과 농촌권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환승센터 기능과 공영차고지의 기능을 결합한 환승 복합차고지 시설을 청암대 맞은편인 덕월동 273-1일원에 3,58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국비 7억, 시비 21억)으로 토지보상비 20억 원, 부지조성 및 부대비용 8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끝마치고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시설을 버스가 정차하는 차고지, 시민쉼터(청암대 앞 시내버스 승강장 겸), 환승 시설을 갖춘 복합 인프라 공간으로 2023년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시기에 맞춰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면 관계상 본질문과 답변 내용만 게재하였으며, 보충 질문 및 답변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여순사건 기념공원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우리시는 지난해 7월 21일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순사건과 관련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는 여순사건 추모·기억공원 조성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10월에는 장대공원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순천시, 유족회, 시민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장대공원 일부를 '여순10·19평화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유족회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순10·19평화공원'내 여순사건 관련 상징조형물, 평화의 벽, 여순사건 역사길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순10·19평화공원'과 정원박람회장을 연계하여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지는 다크투어 코스로 만들어 많은 참배객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가차원의 기념사업이 논의되면, 국가 규모의 사료관이나 추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Q3 생목동 (전)배수펌프장 부지 비품 창고 신축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생목동 배수펌프장 부지 비품창고 신축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생목동 8-114 (수도용지)번지는 상수도 가압장 부지로 면적은 5,203제곱미터입니다. 이곳에 행사용 비품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를 신축하고자 1회 추경에 설계비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부지의 접근성과 사후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김 태 훈 의원

조곡·덕연동 / 문화경제위원회

- Q1 순천역세권·연향3지구 상권에 대한 환경정비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하여
- Q2 연향동 상권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 Q3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에 관하여
- Q4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소상공인 업무의 전문직 위제 지정·운영에 관한 순천시의 견해에 관하여

Q1 순천역세권·연향3지구 상권에 대한 환경정비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순천시는 낙후된 순천역 주변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미관 개선과 쾌적한 통행 환경 제공을 위해 역전 교차로 주변 중심 가로에 대하여 한 전지중화사업과 도로정비 사업을 정원박람회 종료 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방문객들에게 순천의 첫 이미지가 될 수 있는 순천역과 연향3지구 상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노상적치물정비 등 거리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동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역량 강화교육, 축제 등 다채로운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Q2 연향동 상권 활성화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연향동 상권을 비롯한 순천시 대부분의 상권이 경기침체, 소비패턴 변화, 소비인구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인회를 포함한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연향동은 247명의 회원을 보유한 연향패션상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진행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쇼핑문화 및 소비패턴 변화 적응을 위한 상인교육도 병행하여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3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이자지원사업과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매년 3억 원씩 별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보증대출 소상공인은 550여명 이상이며 금융이자로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 순천시 경제지표 조사를 계획함에 따라 용역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4 소상공인, 골목상권 업무 전문 직위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국내 경제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인상, 주식급락,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이런 경제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20,090개소의 소상공인 업체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근간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확대 시행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를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담 또는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량을 분석하여 전담요원을 보강할지 아니면 전문직위를 공모하여 배치할지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최 미 희 의원

왕조1동 / 문화경제위원회

- Q1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 순천시 계획에 관하여
- Q2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사업 확대 계획 및 운영에 관하여
- Q3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순천시 계획에 관하여

Q1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 순천시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2018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그리고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 소속 근로자로 되어있어, 공공근로자,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나 민간부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파장과 형평성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시 생활임금 대상으로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 수는 2,768명 정도이고, 내년 시간당 최저시급인 9,620원을 적용할 경우 559억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만약 생활임금 단가를 10,000원으로 적용할 경우 23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단가를 11,000원으로 인상하면 82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여건, 다른 지자체 시행 추이, 다른 직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이후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Q2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우리 시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을 제외한 만 80세 이상 9,0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연 12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7개 지자체에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4개 지자체는 복지급여(기초연금 등)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로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복지급여 수급과 상관없이 지원연령 기준 내 모든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만 80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2,500여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까지 지원대상 확대 후 단계적으로 연령 하향 조정이나 지원 금액 확대 등,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대다수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시「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에 시작하여, 2022년 현재까지 17년 동안 737건(연평균 43건) 132억원(연평균 7.7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13억 3천만원(본예산 10억, 추경 3.3억)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쉼터 조성 지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 Q3 -1**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공유, 이웃과 정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절실합니다.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운영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공동체 성장을 지원하는 주민참여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다양한 유형(농촌, 교육, 문화, 도시재생 등)으로 추진 중이며, 무엇보다,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동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공동주택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공동체의 공모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등 주민참여 공모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Q3 -2** 왕지동 산 136-7 왕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순천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왕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0. 3. 10. 제안서를 신청자(㈜제이제이주택 대표 박용규)로부터 접수 받아 주민공람과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예 신청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 3. 24.) 결과 인근 아파트 민원해소 내용을 포함해 총4가지 조건으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수립 승인(2022. 7. 15. 전라남도 고시)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전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4가지 조건(민원해소 및 도로개설 등)을 포함한 각종행정절차를 검토하여 실시계획 인가와 아파트 건설 승인이 결정될 것입니다.

롯데 및 두산아파트의 교통, 소음, 분진, 교육, 안전문제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자인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 현 아 의원

해룡면 신대리 / 행정자치위원회

- Q1 신대지구 택지 개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 Q2 신대의료부지 의료융복합타운 설립 진행 상황에 관하여
- Q3 신대지구 스타필드 유치 추진 계획에 관하여
- Q4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에 관하여

**Q1 신대지구 택지개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신대지구 택지는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13년까지 택지가 부분 준공(택지 2,063천㎡) 되었고, 현재 임시 사용 중인 골프장이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되면 신대지구는 사업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신대지구는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광양경제자청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무처리 특례해제는 신대·선월 지역이 하나의 단위개발 사업지구로 묶여 있어 건축법에 따라 100분의 90이상 사용 승인이 되어야만 적용되므로 해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무처리 특례가 해제되더라도 인·허가권 등 실질적인 지구단위 권한이 광양경제자청에 있어 이원적 행정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물은 2015년 7월에 인계·인수가 완료되어 우리시에 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인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하천 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2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Q1 -1 택지개발 시 주민불편 등이 없도록 협의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대지구는 앞으로도 광양경자청에서 관리하게 되며, 우리시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인·허가에 대해서만 협의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광양경자청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향후 인계·인수받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신대의료부지 의료융복합타운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우리시는 신대의료부지에 상급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거봉그룹과 두 차례의 업무협약(2020.6.22. / 2021. 1.8.)을 체결하였고, 사업자(거봉그룹)는 지난해 2월(2021. 2. 26.)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전라남도, 그리고 광양경자청과 면담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고, 2021년 7월부터는 추진단(T/F팀)을 운영하여 제반사항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순천은 병상 과잉공급 지역으로 의료법인 신규허가 제한지역이었으나, 전라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1년 8월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화분야 진료 의료기관은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의료법인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4회) 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 유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난 7월(2022. 7. 11.)에 1조 8,864억 원을 투자하여 1,000병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자금조달계획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서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광양경자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의료기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3 신대지구 스타필드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신대지구 스타필드 유치는 우리시가 영호남과 호남을 잇는 남해안권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입니다. 이번에 유치하고자 하는 복합쇼핑몰은 동서화합을 이끄는 '화개장터형 프로젝트'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대도시 중심의 단순한 쇼핑에서 벗어나 정원을 기반한 생태관광과 쇼핑, 레저, 힐링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쇼핑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필드 유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 스타필드 유치에 대한 전라남도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난 8월말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와도 만나 우리시의 잠재력과 남해안 관광벨트를 통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신세계측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전라남도과 광양경제청에서도 순천의 스타필드 유치를 위해 T/F를 구성하였고, 사업자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 내에 투자유치 협약(MOU)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소기업인들의 피해 최소화 등 상생 방안도 모색하는 등 복합쇼핑몰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Q4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계획 수립 및 학교부지 매입 등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전남도교육청 소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설립 기준 (6,000세대 이상 동시입주)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고등학교 설립은 통학구역 거리 제한이 없고 순천시 관내 전체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신대지구는 10,700세대(3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학교(3개)와 중학교(2개)는 있으나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선월지구가 개발되면 5,395세대(16,000명)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대·선월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신대·선월지구 고등학교 설립을 전남도 교육청에 적극 촉구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유 영 갑 의원

승주읍·주암·송광·서·황전·월등면 / 행정자치위원회

- Q1 국가정원 노동자 고용승계에 관하여
- Q2 지역 분권형 신재생 에너지 공영화 사업에 관하여
- Q3 모든 농민에게 제대로 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시비 확대에 관하여
- Q4 농업기반시설 사업확대에 관하여
- Q5 서면 중학교 유치 계획에 관하여
- Q6 서면 공단 이전 계획에 관하여
- Q7 서면 도서관 신설 계획에 관하여
- Q8 동산초 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서천 스윙교 설치에 관하여

Q1 국가정원 노동자 고용승계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현재 국가정원은 운영대행사와 근로자 간 계약을 통해 123명을 고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용 계약기간은 연말까지로 내년에는 새롭게 선정된 대행사와 근로자 간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휴장 기간 등 고용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운영대행사 선정 입찰 공모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과 평가 반영, 사후관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지역 분권형 신재생 에너지 공영화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우리시는 올해 3월 제3차「순천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에너지 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정공급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순천시 직영 발전소 3개소와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에 에너지 비용절감형 태양광 18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공공기관 건물과 유희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등 시설 공영화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태수도 파괴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어촌 자연생태 환경을 훼손하며 지역 주민과 부딪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규정에 의거 법적 기준에 맞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라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훼손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한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나 산지전용허가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일류 순천의 이미지에 맞게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Q3 모든 농민에게 제대로 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시비 확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농어민 공익수당은 1년 이상 전라남도에서 주소를 두고,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임업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5,088개소 농가에 총 90억 5천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되어, 증액 시 전라남도과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익수당 증액은 전라남도 22개 시장·군수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하고, 전라남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공익수당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라남도과 시장·군수 협의회 시 공익수당 증액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Q4 순천시 전체 농업 기반시설 사업 예산 확대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농업기반시설 사업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농업기반시설 사업예산으로 125억원을 편성하여 농민들이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용배수로, 취입보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분배 시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농민회 등 여러 직능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편중됨이 없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5 서면 중학교 유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먼저, 중학교 설립계획 수립과 학교부지 매입 등 중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순천교육지원청과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설립 기준인 '6,000세대 이상 동시입주'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중학교 설립은 통학구역 거리 제한이 없고 순천시 관내 전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순천교육지원청은 서면지구 학군내에 5개 중학교(향림, 매산, 순여중, 이수, 동산여중)가 있어 중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배치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학교 간 과밀(향림중, 매산중)·과소(순여중, 이수중, 동산여중) 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서면지구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6,0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가 입주할 경우 중학교 설립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순천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Q6 서면 공단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서면 산단은 도심 상단에 위치하여 그동안 도시팽창 등으로 인해 환경상, 도시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면 산단은 준공된 지 약 4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여건 변화로 산단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산단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준공된 산단의 해제사례는 없으며 100% 분양 완료된 서면 산단의 이전과 대체산단 조성 등은 천문학적 비용과 입주업체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도시 미래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산단 이전이 필요하나, 지금 상황으로는 이전 대체부지도 마땅치 않아 도시기본계획 검토 등 장기 과제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Q7 서면 도서관 신설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서면 도서관 신설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시립도서관 8개관, 작은도서관 92개소, 사립도서관 1개소 등 총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도서관을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개관 예정으로 죽도봉 땅속도서관과 신대도서관, 풍덕동 배수펌프장에 오천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면 도서관 신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면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서면에는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만 5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근 2~3km 거리에 있는 삼산도서관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수를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여수시는 7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우리시 인구와 비슷한 전북 익산은 8개, 군산 5개, 강원도 춘천은 7개의 도서관이 있어 우리시가 전국 대비 도서관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도서관 정책을 양적팽창보다는 질적 수준을 올려 내년부터는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pc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오디오북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도서관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가상공간을 이용한 각종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공유로 좀 더 시민들이 쉽게 도서관을 접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 동산초 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서천 스윙교 설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동산초 학생 대부분은 선평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통학로로 국도 17호선과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통학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1년 선평교 하부에 통행로와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량 하부로 통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스윙교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서천 하천정비 이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유 승 현 의원

비례대표 / 행정자치위원회

- Q1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에 관하여
- Q2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회, 2회 심사과정에 관하여

Q1 창업 아이디어 사업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4차 산업혁명 분야, 친환경 분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에서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고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는 순천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으며, 그 일환으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3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미진행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운영했지만 2회에 걸쳐 선정된 경진대회 창업팀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 청년 고용, 외부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한 후에 추가 시행여부를 판단하고자 올해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정팀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1회 경진대회 관련 의원님이 지적하신 1위 수상팀은 대회 참가자격요건에 적합하고 부정 환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적합하게 선정 ·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참가기준은 국제대회의 수상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논란이 된 수상 팀은 기준에 적합하여 참가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타 기관에서 보조받은 사업비 집행내역과 우리시 지원 사업 사용내역이 중복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Q2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회, 2회 대회 심사 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먼저 1회 대회 심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는 참가자 모집, 예선(팀빌딩), 본대회, 패자부활전의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참가자 전원이 예선(팀빌딩)의 절차를 거쳐 32개 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본선진출팀 9개 팀을 선발하였습니다.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발표 및 심사를 통해 3개의 수상팀을 선정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패자부활전을 실시해 2개 팀이 추가되어 총 5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대회 심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대회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심사, 예선, 해커톤, 데모데이, 본선의 절차를 거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1차는 서류심사를 통해 133개 팀을 선정하였고 예선에서의 발표심사를 통해 40개 팀, 해커톤대회를 통해 본선진출팀 20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진행 후 아이디어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개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장 경 원 의원

외서·낙안·별량·상사면·도사동 / 행정자치위원회

- Q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강변로 그린웨이 활용 계획에 관하여
- Q2 저류지 조성 경과 및 목적에 관하여
- Q3 오천지구 초등학교부지(오천동 955번지) 활용 계획에 관하여

Q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강변로 그린웨이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제가 취임하여 가장 먼저 박람회 업무부터 꼼꼼히 챙겼습니다.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람회장 조성계획 등 행사를 치를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았습니. 대한민국 최초로 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를 바꿔 냈던 순천이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볼거리와 체험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2023정원박람회는 국가정원을 넘어서 순천만습지와 동천, 저류지 정원을 주 박람회장으로 삼아 도심으로 확장하는 콘셉트입니다만, 저류지정원이 국가정원과 당절되어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는 한, 박람회장을 도심으로 확장하여 차별화하겠다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변로와 동천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변로 녹지 조성을 통해 저류지와 동천을 하나로 연결하여 개막식 등 주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박람회가 시작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박람회 이후 원상 복구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이후,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복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Q2 저류지 조성 계획과 박람회 이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오천동 저류지 사업은 2022년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류지는 국가정원과 동떨어져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1차원적인 홍수예방 기능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저류지 정원화 사업은 기존 100년 빈도의 저류 기능(저류용량 59만³m³)은 유지하면서도 저류지를 정원으로 조성하고, 야간경관이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박람회 이후에는 물과 잔디길, 녹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대한민국 저류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겠습니다.

Q3 오천지구 초등학교부지(오천동 955번지)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오천지구 개발 당시, 오천동 955번지를 학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신규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대신 남산초를 증설하고, 도사초를 존치하기로 결정해, 현재는 오천 주민들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은 방문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주까지 박람회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도사동 주민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을 실무진들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최 병 배 의원

왕조1동 / 도시건설위원회

- Q1 소각장 설치 등 청소행정 전반에 관하여
- Q2 2023년 박람회 교통 종합대책에 관하여
- Q3 순천만 가든마켓 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 투입내역과 운영수지 상황과 앞으로 운영대책에 관하여

Q1 -1 클린업 환경센터의 입지에정지를 4곳으로 압축하여 선정한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클린업환경센터의 최적후보지가 1순위 월등송치, 2~4순위가 서면과 주암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이 최적의 입지로 선정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세계적인 정책트렌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와 같이 폐기물 처리 문제를 겪었던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폐기물을 에너지로 만들어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지하에 두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입지에정지는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처리시설을 도입해야 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당면 현안인 만큼 시의회, 지역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Q1 -2 주암 자원순환센터 화재 등 운영중지로 인한 운영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자원순환센터는 2020년 6월과 12월 발생한 화재와 보수작업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보완을 하였으며, 현장 수시점검과 CCTV 보강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순천에코그린(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2014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입니다.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완공 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Q1 -3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운영계획과 인근 개발 중인 택지 개발 지역의 민원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왕지매립장의 부지면적은 14만 8천 평방미터(148,511㎡)이고, 매립용량 대비 현재까지 매립된 용량은 약 90%입니다. 왕지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매일 매립·복토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해충발생 억제 작업 등으로 민원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Q1 -4 가칭 “차세대 에너지 광역화 시설단지 조성 사업”의 3개 지자체의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순천·여수·광양 3개시 공동현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9월 여수광행정협의회를 통해 처음 광역화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수차례 실무진끼리 만나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여수·광양시 모두 그동안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실무팀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우리시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해 나가되, 연말까지 타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264회 임시회)

Q1 -5 우리 시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쓰레기 감량화 정책은 쓰레기는 적게 만들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자원을 최대한 선순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분리수거함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주택단지 재활용 거점 수거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투명페트병, 캔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자원 회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2 2023년 박람회 교통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2013년과 2023년 박람회의 주차대수 비교와 박람회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오천택지 임시주차장 4,415면을 포함, 8,770면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5,730면의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천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 250억원의 사업비로 연향들에 주차장 1,160면을 조성하였으며,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협의를 통해 풍덕들에 1,600면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극성수기를 대비해 팔마체육관, 생태문화교육원, 오천 학교부지 등 임시주차장 2,513면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에는 교통통제인력 1일 80명 이상을 투입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 20대를 운행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Q3 -1 순천만가든마켓 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 투입내역 및 운영수지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순천만가든마켓 건립에 투입된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149억, 공사비 111억을 포함하여 총 29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는 순천시 출자금 10억, 민간주주 출자금 10억 1백만원을 합한 자본금 총 20억 1백만원으로 올해 3월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순천만가든마켓 운영 수지상황은 9월말 기준으로 총 매출은 약 10억원이며, 순수익은 약 1억 5천만원, 지출은 약 5억원으로 3억 5천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순천만가든마켓 법인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의하면 2022년부터 3년간 적자가 예상되고, 운영 4년차인 2025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측되었는데, 현재 예측범위 내에

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기반시설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정원수공판장과 온·오프라인 판매장 운영을 본격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기업홍보부스를 가든마켓으로 유치하고 많은 관광객과 시민을 끌어들이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정원체험·교육·전시·농가지원·청년 사업 등 정원산업문화복합시설의 기능을 더하여 순천을 정원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Q3 -2 순천만가든마켓 2025년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순천만가든마켓은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한 가운데 오프라인 판매로만 6개월간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개설과 정원수공판장 활성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원스톱 판매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 지금보다 방문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지속적인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방문객 대상 소매 위주에서 공공기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Q3 -3 최대주주인 순천시의 장기적인 대책 및 가든마켓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현재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시는 지도감독 의무와 최대주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부실운영과 자본잠식 우려가 심각해진다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적자 발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순천만가든마켓 상생협력존」을 조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존」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에 기회를 제공하여 입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든마켓에서 위탁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우리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판매권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건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



김미연 의원

조국·덕연동 / 문화경제위원회

정부의 노인들의 생계수단인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함

[전 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공형 일자리 수를 올해 60만 8000개에서 내년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높은 역량과 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라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명이 넘는 실정에서, 정부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로 75세 이상 고령자가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습니다.

결국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방침은 저소득 고령자들을 노동 강도가 세고, 경쟁이 센 시장 영역으로 내모는 결과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형 일자리 60만 8000개는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았습니다.

27만원의 금액이 어르신들의 노력에 비하면 부족한 금액이긴 하지만, 공공 일자리에 생계를 의지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들어 결국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공공형 중심에서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한꺼번에 빼앗는 일입니다.

이에 순천시 의원 일동은 공공형 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어르신들의 생계수단인 공공형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의 노인들의 생계수단인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개편하고,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



최 현 아 의원

해룡면 신대리 / 행정자치위원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및 보다 적극적인 교원 정원 확대를 촉구함.

[전 문]

지난 7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역별 교육 여건 개선과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향상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교육수요에 기반한 교사 정원 수급 방법의 개선과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방안 수립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3년 전남 교원 정원을 327명 감축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전남교육청은 2023년에는 작년 대비 270명이 감소된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담임 교사가 학급에 60명 정도를 지도했으나, 최근에는 15명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는 출산율 감소의 원인도 있지만, 변화된 학생 수준과 교권, 감염병 유행 시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적인 방역,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 증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저해, 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간 증가 등이 예상되는 정부의 교원감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서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공립 중등학교는 6학급 이하 학교 수가 전체의 52.4%에 이를 정도로 소규모학교 비중이 매우 높다. 이들 소규모학교의 경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큰 규모의 학교보다 학급 당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마다 1,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과목의 교사를 배치할 수 없어 겸임·순회 교사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남의 공립 중등교사(교수 교과) 결원과 신규 총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67.5%, 2020년 50.3%, 2021년 53.8%로 결원 대비 총원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22학년도 중등교사 선발 인원도 320명으로, 결원의 38.1%를 채우는 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특수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전남의 중등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신규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지방교육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2023년 급격한 정원 조정안은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현장 교원들과 교원임용을 준비하는 교·사대생들의 고통이 배가 될 것이며, 새 정부 교육 분야 국정지표인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 코로나19 이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효율적인 교육과정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교원 감축을 결정한 교육부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전남 지역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남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철회하라.

하나,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장 경 순 의원
왕조1동 / 행정자치위원회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이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별 갈등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접근이 가능함.

우리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큰 고민과 의미 없이 오직 정국 전환용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함.

[전 문]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정책의 총괄·조정, 남녀차별의 금지·규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래, 20년의 기간 동안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 가족 및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결국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30%라는 임기 초기라고 믿을 수 없는 저점을 찍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얻고자 하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어리석은 판단에 불과하다.

이미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 등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 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 보이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 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처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실제 성평등 정책이 시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명분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처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라.

하나, 여가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



장 경 원 의원

외서·낙안·별량·상사면·도사동
행정자치위원회

현재, 여수공항은 김포 및 제주 등 주요 항공의
지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지역관광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항공 교통 서비스의
지속적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여수공항
활성화를 촉구함.

[전 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재정적자 및 국제선 운항수요 증가로 여수공항 영업을 철수한다고 한다.

지난해 제주항공 이용객은 44만9천76명으로 여수공항 총 이용객(111만5천699명)의 40%를 차지한다. 이런 제주항공이 영업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항공 교통수단 부족 상태를 초래해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을 찾은 관광객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순천시, 1천만명 관광객 시대를 앞둔 여수시, 관광도시 도약을 준비 중인 광양시는 이번 감편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여수공항측은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및 호남고속철도 등 육상 교통 기반 개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항 저상화 및 고유가에 따른 항공료 인상 등의 여파로 여수공항 이용객의 지속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은 올해 연간 98만명의 예상 이용객 수가 내년에는 60여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에 따라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게 국내선 기준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최대 10억원의 손실지원금을 올해 1월부터 여수공항의 기 활성화를 이유로 중단함에 따라 여수공항 측의 우려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 전라남도가 항공사업자 운항 손실지원금 중단의 이유로 든 여수공항의 기 활성화 및 지난해 여수공항 최초의 연간 여객 운동 100만 명 달성은 한시적 활성화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의 재정 악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여수공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국가 기간산업인 대단위 석유화학단지와 제철단지가 입지해 있어 항공 물류 및 이용객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동이 매우 중요한 전남 동부권 유일한 항공 관문이다.

또한 순천시는 내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이고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다양한 교통기반 확충이 절실해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남 동부권의 중요한 교통 기반인 여수공항이 물류와 관광 및 생활권을 아우르는 광역 교통망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특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공항 부정기 국내선 운항 확대와 국제선 취항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여수공항이 전남 동부권 85만 도민의 교통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의 거점이자 관광객 접근성 향상의 교두보임과 전남 동부권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임을 고려하여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라.

하나, 한국공항공사는 항공 이용객 및 전남 동부권 85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사 노선을 증편하고 공항 시설 기반을 조속히 개선하라.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신 정 란 의원
비례대표 / 문화경제위원회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쳐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전액 삭감한 것은 철저히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것임. 지방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자 함.

[전 문]

정부가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액한데 이어 내년도 국비에 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의 민생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당초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살리는 핵심 정책으로 출발했습니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현재 전국 232개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2018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 기준 1,031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자료에 보면 2020년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평균 87만 5000원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은 오히려 8만 6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0년 광주전남연구원의 '전남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중 시군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가 1,168억원을 발행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1878억 원, 소득유발효과 46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42억원, 고용유발효과 2,616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성상 지역에서만 효과가 있는 지역사업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데다, 코로나 국면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 뿐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전액 삭감한 것은 철저히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이 없어지면 할인율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2023년 국비 예산 전액 삭감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 광 현 의원

항·매곡·삼산·저전·중앙동
문화경제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전 문]

2021년 7월 20일,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 여순사건법)이 제정되었다.

여순사건법의 제정은 지난 74년 동안 통한과 설움으로 한 평생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에 뜨거운 한희의 눈물을 흘려내리게 했다.

그러나 여순사건법은 사건 당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처벌을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다.

또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명단을 포함하여 진실규명 결정 사례(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 확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전무하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완료된 후에 논의하더라도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여순사건법에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74년 만에 정부의 공식 희생자 결정을 받았지만, 희생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유족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순사건법 시행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3천200여 건에 불과하다. 추정 피해자 2만여 명에 비하면 턱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결과로 유족들 대부분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려운 데다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전히 현행법만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74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는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위령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통한의 세월을 건디어 오신 유족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여순사건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군법회의의 명령(유죄 판결) 등 문서에 기재된 사람과, 군사재판 이외에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과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해야 한다.

하나, 74년 동안 모진 세월을 버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 차원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대정부 건의

하나, 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고, 당시 희생자와 경제공동체였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와 함께 그 유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하나,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단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당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하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하여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



최 미 희 의원
왕조1동 / 문화경제위원회

고속도로 민원화 정책으로 SRT와 KTX로 분리된 이후 고속철도를 이용해 서울 수서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순천과 여수 등 전남동부권 도민들은 중간 환승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우리 시의회는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 철도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 가고자 함.

[전 문]

정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하고 전라선 수서행 KTX를 즉시 운행하라!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민간시장 개방을 예고하며 철도의 차량정비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고, 관제권 이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개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철도를 쪼개어 민영화를 시도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철도민영화는 또다시 철도노동자의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고, ‘공공재의 민영화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거스르는 일이 될 뿐이다.

철도는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되며, 민영화 해서도 안되고, 경쟁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SRT와 KTX로 분리된 철도를 통합하고 국유화로 전환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정부 건의

전라선 수서행 KTX의 즉시 운행으로 철도 공공성을 확대하라!

전라선 수서행 고속철도 운행은 전남도민의 숙원이다. 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라선 수서행 KTX를 당장 운행하라.

고속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SRT와 KTX로 분리된 이후 고속철도를 이용해 서울 수서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도민들은 중간에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여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KTX를 활용하면 별도 면허가 불필요하고 시설·차량 등 기술적 문제없이 즉시 수서행 KTX 운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전라선 주민의 교통 이동권이 보장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KTX와 SRT의 운임차별도 사라지며 공급좌석이 늘어나고, 일반열차와 환승할인을 비롯해 정기권 사용까지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서민의 발'인 일반열차를 축소할 필요도 없으며, 지역에서 수서까지 환승 없이 직통으로 갈 수 있어 훨씬 편리해진다.

그러나 정부는 고속철도 분할 확대와 민영화를 위해 SRT만 고집하면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에 독점과 특혜만을 늘려주고 있다. 공공성을 포기한 정부는 국민을 포기한 정부다. 철도공사는 공공성을 위해 재투자 하지만 SR은 공공투자 없이 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뿐이다.

순천시의회는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철도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전라선과 경전선 등에 수서행 KTX를 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자유발언

「8·28 수해피해 위령탑」
조속히 이전해야

김 태 훈 의원

조곡·덕연동 / 문화경제위원회

- 냇 기리고자 위령탑 세웠지만 도로가에 방치
- 순천의 60년 전 아픈 상처 잊어서는 안돼



김태훈 의원은 9월 21일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안전에 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8·28 수해피해 위령탑」 이전을 촉구했다.

1962년 순천지역 수해는 8월 27일 오후 5시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로 28일 1시경 195mm의 강수량을 동반, 삽시간에 순천 시내를 삼켜 224명의 사망자와 1,692동의 가옥이 완파, 유실되어 3,030가구 13,96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대형 자연재해였다.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장천, 풍덕, 가곡, 옥천, 동외, 중앙, 조곡동 등으로 이 참사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대참사 1년 뒤 조곡동 옛 뚝방길 조곡교 입구에 위령탑이 세워진 바 있다. 위령탑은 동천변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조곡동 독실, 우미정 앞 도로변으로 옮겨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변에 붙어있어 통행에 불편할 뿐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져 위령탑의 존재조차도 잊혀지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60년 전의 아픔을 거울삼아 항상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기상이변 등 기후 위기와 재난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위령탑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훈 의원은 자유발언 맺음말에서 위령탑에 새겨진 내용을 읊으며 수마에 희생된 넋을 추모했다.

의원 자유발언



별교읍 추동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장소 변경해야

우 성 원 의원

외서·낙안·별량·상사면·도사동 / 도시건설위원회

- 지역민의 여론 무시한 채 관계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
-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우성원 의원은 지난 30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별교읍 추동리에 조성 예정인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였다.

우 의원은 본 매립시설이 우리시 광역상수원 주암호의 상류지역인 외서면과 불과 30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매립장 조성 시 악취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따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침출수는 별교천을 따라 청정해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세계적인 유산 순천만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 수산자원의 오염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며, 본 사업의 승인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보성군수에게 우리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소를 변경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순천시의회와 '페친'이 되어주세요!

"땡땡~ ♪"

순천시의회가 친구요청을 보냈습니다.

순천시의회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순천시의회 공식 SNS에 생생한 의회소식을 담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순천시의회 공식 페이스북 접속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순천시의회 페이스북' 검색
- 주소 직접입력 : facebook.com/suncheoncouncil
- QR코드 접속

순천시의회
페이스북 바로가기



의회운영위원회



정 홍 준
위원장



장 경 원
부위원장



이 향 기



김 태 훈



최 현 아



양 동 진



이 세 은



정 광 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홍준)에서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사일정 협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3년 주요 업무보고 작성',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투명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해 면밀하게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검토 및 심의하였고,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계획에 대해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갈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했다. 또한 집행부의 2023년 주요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23년 주요 업무보고 작성의 건'을 의결했다.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했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내년도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활동계획과 방향성을 파악했다. 또한 순천시 재정의 효율성 등 재정운영 분석을 통해 순천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순천시 재정진단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을 심사·의결했고,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일하는 의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이영란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



박계수



유영갑



정홍준



장경순



유승현



장경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에서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직속부서,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보건소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받았다. 이외에도 박계수 의원이 의원발의한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제·개정 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했고 「순천시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가결했다.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비가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확인하고 소상히 검토했다. 일반안건은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11건을 상정하여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 개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



나안수



최미희



김미연



신정란



김태훈



이세은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진)에서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주요업무보고’,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양봉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주요 사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사하여 분납 및 채권 확보 등 적극행정을 통한 미수납액 징수, 다양한 방안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장방문은 반려문화센터, 야영장 사업 대상지, 어울림센터 등 주요 정책 현장 3개소에 대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된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변화된 행정 환경과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대안의 제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생산성 있는 업무보고를 이끌었으며,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함한 총 7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문화경제위원회 현장방문



양봉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간담회 ▲



도시건설위원회



최병배
위원장



양동진
부위원장



강형구



이복남



오행숙



우성원



이항기



서선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에서는 제263회 1차 정례회부터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 지출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제263회 1차 정례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2022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선란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제·개정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 하였다. 또한, 현안사업 현장(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업 현장 등 3개소)를 방문하여 시민 불편사항 등이 없도록 지도·점검했다.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일반안건은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등 2건 중 1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현장(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 방문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했다.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업 현장 확인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현장 방문 ▲
- 순천만 습지 등



▲ 목재문화지원센터 현장 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연)에서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순천시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 불용액 및 이월 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 등 총 5건을 권고하며 심사의결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순천시에서 제출한 1조 7,234억원 규모의 2022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성공적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위한 예산으로, 박람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순천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1건, 8,000만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제출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오행숙)는 박람회를 6개월 가량 앞두고,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촬영 중인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를 방문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형구)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략 및 설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서부권(목포)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순천시의회 의지를 피력했다.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희)는 집행부에서 진행중인 여·순 10·19사건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자치혁신과 등 집행부 3개 부서와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여·순10·19 범국민연대 등의 민간 단체들과 함께 사업 공유, 의견 제시 등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순특별위원회는 향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중 구성됐고,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위원장(이항기 의원)과 부위원장(양동진 의원)을 선임했다.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계획에 대해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계획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의회갤러리

QR코드를 통해 더 많은
사진들을 확인해 보세요



2022. 9. 8.
전남권 의대유치 캠페인



2022. 9. 14. 제273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2022. 9. 21. 이통장 어울림 한마당





2022. 9. 23. 경전선 전철화 도시 포럼

2022. 9. 30. 순천 문화재야행



2022. 10. 7. 웃장국밥축제



2022.10.08. 순천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2022. 10. 8. 차문화산업전



2022. 10. 11. 세종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2022. 10. 12.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



2022. 10. 15. 제28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



2022. 10. 15. 문화도시박람회



2022. 10. 20. 여순항쟁 74주년·특별법 시행 9개월 순천 유족회 합동위령제



2022. 10. 22. 순천시지역아동센터 꿈나무 재능계발행사



2022. 10. 22. 일본 이즈미 시장 순천시 방문



2022. 10. 28. 전주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2022. 10. 28.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



2022. 10. 29. 별량 고들빼기 축제



2022. 11. 2. 순천시의회와 함께하는 성평등 포럼



2022. 11. 3.
4대 폭력 예방교육



노관규 순천시장,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 초대 의장 자격으로 축사 -



순천시는 지난 11월 10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습지를 통한 국제적 연대 강화에 나섰다.

순천시는 2018년에 개최된 제13차 람사르 총회에서 7개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람사르 습지도시로 최초로 인증받았다. 2019년에는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의 초대 의장 도시로 선출됐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1971년 2월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1997년에 101번째 가입국이 됐다.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초대 의장 자격으로 람사르 총회의 초청을 받은 노관규 순천시장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하고 공식행사 개회식에서 축사에 나섰다. 신규 습지로 인증 받은 서귀포시, 고창군, 서천군을 비롯한 13개국 25개 지자체를 축하했다.

노 시장은 축사에서 “습지도시 초대 의장인 순천시는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깨달았던 것들을 공유하겠다.”라고 습지도시 간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다. 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해양정원인 순천만 습지와 육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습지의 보전과 활용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창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 시장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성아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순천의 생물다양성 증진 노력과 성과를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SUNCHEON NEWS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협력

순천시는 지난 9월 1일 부산광역시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광역시는 2023정원박람회장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정원을 조성하여 부산 유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 및 국내외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는 부산삼락생태공원이 제3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정원 지정 및 정원문화 활성화 정책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정원박람회와 세계박람회라는 큰 행사의 개최 및 유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생태·경제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시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기부로 전해주세요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증정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인,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는 기부자가 될 수 없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지만 합산하여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된 특산물, 관광지 입장권, 지역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례품으로는 지역화폐, 농산물, 가공품 순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01

실종예방, 등록하면 빨리 찾는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 ☑ **등록대상**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 ☑ **등록방법** ① 안전Dream 홈페이지 및 안전Dream 어플 신청
②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방문
- ☑ **상담문의** 국번없이 182

*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는 등 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사전등록 자료는 자동으로 폐기되며 보호자의 등록 취소 요청 시 언제든지 폐기 가능

02

일사천리 순천 가입 및 이용방법

시민 생활 속 안전 및 불편 민원을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카카오톡 민원접수 창구

- ☑ **접수민원**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 생활 불편 관련 민원
- ☑ **가입방법** 카카오톡 채팅 메뉴에서 '일사천리 순천' 검색 후 채널 추가
- ☑ **운영체계** 카카오톡 채널로 민원 접수 → 실시간 민원 모니터링 후 소통(1차 피드백) → 민원처리 과정 중 수시 소통(중간 피드백) → 최종 처리결과 안내(최종 피드백)





순천시의회 안내

▶ 의회 방청 안내

순천시 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시의회는 방문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의회방청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 방청안내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61)749-4951

▶ 의회에 바란다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는 시민들의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참여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순천시의회"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 <http://sccouncil.go.kr>을 직접 입력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클릭 → 본인인증 후 글쓰기

의회 민원 상담 창구

전화 061)749-5987 FAX 061)749-4773

▶ 의회 전화번호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운영 위원장실	행정자치 위원장실	문화경제 위원장실	도시건설 위원장실
749-4900	749-5972	749-5974	749-5975	749-5976	749-5977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	의회사무국 FAX
749-5980	749-5982	749-4950	749-4957	749-4963	749-4773

▶ 순천시의회 SNS 페이스북 @순천시의회(suncheoncouncil)

유튜브 @순천시의회(sccouncil)

▶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 위 원 장 정흥준
- 부위원장 장승태
- 위 원 김성홍 김성재 장경원
최현아 정광현 양동진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2023.4.1. ~ 10.31.

- 발행일 : 2022. 12
- 발행인 : 순천시의회 의장
- 전 화 : 061)749-4965
- F A X : 061)749-4773